

여수 해상 유조선 충돌 경질유 유출

해경, 경질유 200kl 바다 유출 ... 침몰 가능성 없고 피해 크지 않아

3월11일 오후 9시15분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18km 해상에서 제주 선적 4050톤급 유조선 흥양호와 여수 선적 90톤급 어획물 운반선 801창녕호가 충돌했다.

사고로 흥양호에 실려 있던 15개의 화물탱크 중에 오른쪽 선수에 있는 탱크가 일부 파손돼 내부에 적재돼있던 경유가 최소한 200kl 이상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파손된 탱크에 들어있던 경유 400kl 중 200kl를 다른 탱크로 옮겨 실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이 있어 최소한 200kl 이상의 경유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나자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선 등 15척을 급파해 방제작업 중이며 목포와 통영해경 등에서도 방제선 등을 급파해 지원 작업에 나섰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바람이 시속 4-6m로 강하게 불지 않았고 파도 높이는 0.5m로 높지 않았다.

해경은 일단 침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명 피해 또한 없고 다행히 사고가 먼 바다에서 일어나 양식업 피해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유출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유조선은 충남 대산항을 출항해 부산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운반선은 여수 해상에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2>